

ISE 2025



삼성전자 모델이 2월 4일부터 2월 7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더 월'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대형·초저전력 신제품 스마트싱스 기반 AI 방점

SAMSUNG

462형 '더 월' 미디어 파사드 설치
'컬러 이페이퍼' 공개... 전력 대폭 절감

삼성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5'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업계를 선도할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ISE 2025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시장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삼성 컬러 이페이퍼' 4종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B2B(기업 간 거래) 통합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 ▲AI 전자칠판 신제품과 초대형 사이니지 등을 전시한다. 전시관 입구에는 삼성 마이크로 LED 기술을 집약한 462형 '더 월(The Wall)'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됐다.

'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콘텐츠 광고를 위해 소비전력을 대폭 절감한 게 특징이다. 디지털 종이에 잉크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콘텐츠 유지 상태에서는 소비전력이 0.00와트

(W)다. 화면 변경 시에도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현저히 낮은 전력이 소모돼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이 적용돼 이동이 편리하고 다양한 상업용 공간에 손쉽게 설치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사이니지 사용성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싱스 프로의 AI 기능과 자동 제어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B2B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 프로(SmartThings Pro)'는 '인터랙티브 뷰(Interactive View)'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등록한 평면도를 AI로 분석하고 입체감 있는 3D 도면으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공간 시각에 용이한 3D 도면 위에 스마트싱스 프로와 연결된 기기를 맵핑해 쉽고 편리하게 기기를 관리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는 암호 모듈 크립토큰어(CryptoCore)가 탑재되면서 사물인터넷(IoT) 연결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기기 간 연결시 안전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크립토큰어는 암호 모듈 국제 인증인 FIPS 140-3을 획득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해 ISE에서 화상회의 솔루션에 최적화된 105형 5K 스마트 사이니지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115형 4K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ED-AI '화려한 만남'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선보

LG전자

매장, 사무실 등 현장 배경 제품 전시
'LG 매그니트' 업그레이드 버전 공개

LG전자가 4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 참가해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올해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다'를 주제로 전시관을 조성했다. 매장, 사무실, 학교, 교통수단, 호텔 등 주요 현장을 배경으로 한 여러 제품을 전시했다.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초대형 '키네틱(Kinetic·움직이는) LED'는 AI 기술을 적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LED 사이니지 88장을 이어 붙인 가로 7.18m, 세로 4.09m 크기다. LED와 거울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정육면체 모듈로, 각 모듈이 좌우로 360도 회전하면서 다채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올리면 생성형 AI가 팝아트로 전환해 화면에 띄워주는 관람객 직접 참여형 광고 솔루션으로 구성했다.

LG전자는 이 밖에도 ▲AI 기반 리테일 매장 트래픽 및 행동 데이터 분석 기업 트리플렛 ▲학교 출입 관리 및 긴급 상황 대응 솔루션 전문 기업 코코모 24/7 ▲비주얼 프로덕션 전문 장비 및 솔루션 기업 모시스, 메가픽셀, 브롬톤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 로지텍, 시스코, 크레스트론 ▲사이니지 전용 콘텐츠 관리 솔루션 기업 브라이트사인 등 국내외 파트너사와 연계한 다양한 기술도 시연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층 진화한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LG 매그니트'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나볼 수 있다. B2B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용·설치 편의와 콘텐츠 호환성, 에너지 효율 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제품 뒤쪽에서만 가능하던 LED 모듈 간 단차 조절을 앞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LED 컨트롤러 기능을 강화했다. 화면을 꺾을 때 대기 전력도 최대 98% 대폭 낮췄다.



LG전자가 현지시간 4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

특히 태양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화면이 노랗게 변색되는 황변현상을 최소화하는 '안티 디스컬러레이션(Anti-Discoloration)' 기술을 적용한 고휘도 사이니지를 선보인다. 지난해 글로벌 시험·검증기관 'UL 솔루션즈(UL Solutions)'로부터 업계 최초로 디스플레이 변색 저항 특성에 대한 검증을 획득한 이후 첫 대중 공개다. 또 드라이브스루 매장, 실외 수영장, 버스 정류장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을 연출해 디스플레이 황변현상 방지에 최적화된 사이니지 라인업을 전시한다.

소매 매장을 연출한 리테일존에는 화재 안전 규격을 취득해 고객의 안전까지 생각한 사이니지,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2세대 키오스크 등 소매 매장을 위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종합 솔루션을 전시한다.

/구남영 기자

현대차그룹, 美·英 등 자동차 시상식 석권

'왓 카 어워즈' 최고의 기술 등 7관왕
'카 앤 드라이버' 23개 차종 최고모델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과 미국의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라인업의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2025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1978년 시작해 올해로 48회를 맞은 왓 카 어워즈는 유럽에서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올해의 차 등을 포함해 차급별 최고 모델을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5N이 '최고의 핫해치 전기차'에 선정된 데 이어, 캐스퍼 일렉트릭이 '최고의 도심형 소형 전기차'에, 신타페가 '최고의 7인승 차량'에, 아이오닉 5N의 E-시프트(Shift) 기술이 '최고의 기술'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 아이오닉 5N.

기아도 EV3가 '최고의 소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에 등극했고, 스포티지가 '최고의 패밀리 SUV'에, EV4가 '가장 기대되는 차'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 앤 드라이버'가 발표한 '2025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현대차 9개, 기아 7개, 제네시스 7개 등 총 23개 차종이 최고 모델에 올랐다. 카 앤 드라이버는

1955년 창간 이래 미국과 글로벌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자동차 전문지다.

이 외에도 현대차·기아의 7개 차종은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선정하는 '2025 최고의 고객가치상'도 수상했다. 2025 최고의 고객가치상에는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최고의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이 '최고의 콤팩트 SUV',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최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 특히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4년 연속 최고의 하이브리드 승용차 부문을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한 차량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그룹, 친환경 조선 기술개발 박차

베어커휴즈와 가스터빈 개발 계약

한화그룹이 글로벌 가스터빈 제조사 베어커휴즈와 손잡고 조선업계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제해사기구(IMO)·유럽연합(EU)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글로벌 조선업계의 탈탄소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조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IMO는 2050년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100% 감축한다는 내용의 '넷제로' 계획을 발표했으며 EU도 2030년까지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28%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화오션과 한화파워시스템은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베어커휴즈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무탄소 선박 추진 체계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3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베어커휴즈

연례회의'에서 베어커휴즈와 암모니아 가스터빈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동개발할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100% 암모니아 연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를 자유롭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암모니아 연료만으로 과일 및 오일(가스터빈의 안정적 연소를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 없이 엔진 작화가 가능해 완전한 무탄소를 실현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번 공동 개발 계약을 통해 한화오션과 한화파워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완전 무탄소 선박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탈탄소연료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